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2. 11.(수)

통상교섭본부장, 주한멕시코대사와 북미지역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주한영국대사, 주한베트남대사에 이어 주한멕시코대사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1일(수) 1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카를로스 뻬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 대사와 면담을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지역 내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멕시코 정부의 대응 현황, 한-멕시코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완성차·차부품·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對멕 전 품목 25%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한,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규제 강화 역시 북미지역 공급망 질서 재편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북미지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멕시코 정부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당부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 등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멕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와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주한멕시코대사 면담에 앞서 주한영국대사, 주한베트남대사와 각각 면담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진출 업계·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을 지속 점검·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 무 관	조석인 (044-203-5634)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사 무 관	신서현 (02-2100-1379)
		담당자	사 무 관	김유정 (044-203-5737)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 무 관	이동욱 (044-203-5658)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정주 (044-203-5710)
		담당자	사 무 관	박형진 (044-203-5714)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 무 관	김동영 (044-203-56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